

Experience of non-Korean Traditional Musicians in the Process of Pansori Music Listening

Yi, Soo Y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elements of non-Korean traditional musicians in the process of *Pansori* music listening. 5 non-Korean traditional musicians who are not professionally trained Korean music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in 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from modified ground theory metho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elements of performer's voice, *Chang-bub*, contents, *Gosu's buk* sound and *Gosu's* role evoked various physical, emotional responses and thoughts in all listeners. Through these responses the listeners aware internal issues related to inner problems and positive intervention aroused inner feelings. Also, emotional responses and awareness were reorganized their negative emotion and resolved through the different dimension of *Pansori* music.

Keywords : *Pansori, Performer's voice, Chang-bub, Gosu's buk sound, Inner problems, Intervention*

* Doctoral Student, Dep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비국악인의 판소리 감상과정에서의 경험적 요소

이수연*

본 연구는 판소리의 치료적 요소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비국악인이 판소리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요소들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명의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가 판소리를 듣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을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로 수집하였고 이를 변형된(modified) 근거 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판소리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판소리 창자의 창법과 목소리의 음색, 판소리 사설, 고수의 북소리, 고수의 역할 요소는 감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차원의 정서, 신체 반응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정서와 연관된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는 개인의 내적 문제와 연관되어 자신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내면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내 안의 감정과 만나도록 증재되었다. 그리고 감상자가 경험한 개인의 정서와 인식은 또 다른 차원 반응을 유발하여 감상자는 판소리의 요소들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근원을 찾고 내 안의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핵심어 : 판소리, 창자(唱者)의 목소리, 창법, 고수의 북소리, 내적 문제, 증재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 박사과정 (mtsoo@naver.com)

I. 서론

국악은 한국 문화,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이 반영되어 표출된 음악으로 한국인의 독특한 내면적, 심리적 문화체계를 형성한다(유영건, 2011). 국악은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고유한 특징을 갖는 선율, 음계, 선법, 기보법, 악기 등이 있으며(신현정, 곽세열, 배양현, 1996), 한국인의 일상과 관련을 맺고 발달하여 기본적인 사고와 정서가 묻어난다.

국악의 장르 중 민속악의 하나인 판소리는 ‘서사적이고 극적인 구성으로 된 긴 이야기를 인성을 통해 노래로 부르는 극음악’이라고 정의된다(이성천, 1997). 판소리는 일반 서민들의 고달픈 삶이나 척박한 생활환경 등으로 쌓이는 감정을 여러 가지 창법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해내는 독창곡의 형태이다.

판소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해진 틀에 짜여서 진행되고 미적 가치의 기준이 고정된 것에서 벗어나 상황성이나 현장성이 반영되며 즉흥성을 갖는다. 또한, 판소리는 판을 이끌어 가는 창자의 기량에 따라 다른 음악으로 해석되고 재창조되기도 한다(김유석, 2010). 청자는 창자의 소리를 들으며 아니리(말)나 ‘얼씨구, 좋다’ 등의 추임새를 즉흥적으로 하면서 소리꾼의 표현된 내용을 반영, 지지해 주며 자극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정현주, 2011).

판소리의 또 다른 특징은 주 표현 매체인 인성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예술 장르이다(윤명원, 1998; 이희경, 2009). 판소리는 인간의 신체를 사용해서 내는 소리인 만큼 인간적인 표현의 깊이와 색깔이 깊고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판소리에서는 소리의 음색, 표현, 창법 등 연주자의 깊이와 감정이입의 능력이 주요 역량이다. 창자(唱者)는 수련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목소리의 음색이 사아서 예술적인 멋을 성취하게 되며 꺾는 소리, 맺는 소리, 떠는 소리를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되어 만들어간다(Chong, 2011). 창자는 이런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창법을 통해 애절함을 담은 목소리로 응어리, 녀두리, 푸념, 신세타령 등을 한다. 혹은 이면에 깃든 한을 가장 자연스럽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힘찬 소리를 뿜어내고 질러내기도 하면서 맺힌 한을 풀어준다.

이러한 판소리가 갖는 요소들과 특징은 감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반응과 다차원적인 경험을 유도한다. 음악 감상은 감상자가 음악에 대해 정서적, 지적으로 반응하면서 특정한 느낌을 받고 표현 내용을 수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이홍수, 1992)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적 개념들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 지각하고 감응하는 과정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치료에서의 음악 감상 활동은 단순한 여흥 이상의 기능을 하여 인간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여러 심리적인 문제와 내재된 감정을 탐색하게 해주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치유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정현주, 2011). 이러한 음악 감상의 재료로써 판소리의 요소별 특징은 감상자의 다차원적인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소리는 다양한 인간사의 이야기를 창자의 사설을 통해 풀어내며 특정 대목이 감상자의 경험, 사건, 추억과 맞물릴 때 활발한 연상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연상작용은 자신이 가진 기억과 정서가

관련된 유사한 자극이 제시될 경우 정신적, 정서적인 차원에서 재경험하게 된다. 즉, 음악이 어떠한 사건과 관련되었다면, 그 음악은 연관된 개인의 음악외적, 관련적 사고를 유도하여 이 사건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은 물론 정서적 반응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Gfeller, 1990).

민족 음악의 한 장르인 판소리의 음악적 경험은 문화 환경에서 비롯된 음악 외적 경험을 포함하며 이로부터 유발되는 심리적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질화된 의식적, 무의식적 정서 경험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석원(2000)은 음악이 감상자의 정서적 경험을 유발할 때 무의식적, 의식적인 지각 수준 모두를 자극한다고 하였다. 음악이 특정 정서의 경험을 유발함과 관련하여 Gregory(2005)는 음악에 대한 정서 경험은 음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음악 양식에 대한 친숙성과 같은 문화적 요인과 그 음악과 연관된 사회나 종교적 신념과 같은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정서적 차원이외에 음악 감상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클라이맥스로 전개되는 음악의 형식은 감정적 절정을 경험하게 해준다(정현주, 2005). 판소리는 창자가 특유한 창법으로 맺힌 한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고조되기도 하며 판소리의 장단은 진양조에서 시작하여 빠른 자진모리까지 몰아가는 이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리듬을 사용한다(서한범, 2002). 이러한 리듬의 요소는 감상자의 에너지 수준을 상승시키거나 평정상태에서의 각성을 유도하는 경험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음악 감상의 재료로서의 판소리는 감상자로 하여금 판소리가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음악 요소들에 의해 정서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또한 그것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지각하고 감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러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통찰, 내재된 감정의 탐색, 과거의 경험적, 연상적 사고를 다루는 치료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정현주, 2011).

한편, 현재 음악치료사들은 선곡하는데 있어서 한국음악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음악의 문화적 요소 및 고유 민족 음악에 대한 동질적인 반응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선곡을 한다. 이는 판소리를 포함한 국악이 현대의 삶을 사는 한국인들에게 대중적이지 못하고 지루하거나 촌스럽게 느껴지며 서구화된 사회 속에서 부적응적인 음악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유가 있다. 또한, 전통 음악을 매체로 치료적인 활용을 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국악이 치료의 매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가 미흡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전통 음악 안에서 음악 치료적 자원이나 요소들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은 내담자들에게 효과 높은 동기부여와 동질성의 통로를 제공한다. 또한, 민족음악은 고유한 민족의 특징, 독특성, 유사성을 가지므로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익숙하고 치료중재를 위한 반응을 유발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악의 한 장르인 판소리를 감상하는 동안 감상자가 어떤 반응과 정서를 갖게 되며 이런 경험들이 판소리의 어떤 음악적, 음악외적 요소에서 기인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판소리의 치료 적용 요소를 찾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며 본 연구의 문제

는 다음과 같다.

- 1) 판소리 감상과정 동안 감상자는 어떤 경험의 과정을 갖는가?
- 2) 판소리 감상과정 동안 감상자가 경험하는 것은 판소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에서 기인하는가?

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판소리를 감상하는 동안 감상자가 경험하는 느낌과 반응의 요소를 알아보고 이는 판소리의 어떤 특성에서 기인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상자가 판소리를 감상하는 동안 경험하는 과정을 질문과 면접을 하여 녹취하였으며 이를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1. 연구 설계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악전공자는 판소리에 대한 익숙성이 감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비전공자로 참여자를 한정하였으며 기본 설문을 통해 연령, 전공, 국악을 듣는 경험의 유무, 감상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성별	나이	국악 전공	직업	평상 국악 감상 유무
A	여	40	비전공자	회사원	없음
B	여	36	비전공자	사회복지사	없음
C	남	43	비전공자	사회복지사	간헐적, 의도적
D	여	27	비전공자	대학원생	없음
E	여	51	비전공자	주부	간헐적, 비의도적

2) 감상 음악의 선곡

본 연구에서는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인 '썩대머리'를 감상 음악으로 선곡하였다. 썩대머리는

옥중가의 일부로 춘향이가 변 사또의 수청을 끝내 거절하다 곤장을 맞고 옥중에 갇히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이다. 춘향가 중 옥중가는 듣는 이의 심금을 비통한 감정의 절정으로 몰아넣는 부분으로 춘향이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가장 적절하게 압축 상징해 낸 소리목이다(한명희, 1994).

3) 인터뷰 질문 구성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문제에 근거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판소리를 경험하는 동안 감상자는 어떤 경험적 요소를 갖으며 이는 판소리의 어떤 음악적 요소에서 비롯되었는가, 판소리가 감상자의 반응을 유발하는 독창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를 토대로 하였다. 이는 음악치료학과 박사 과정생 5명의 의견을 참고 및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2〉 감상자와의 인터뷰 질문지 구성

질문 내용
1. 판소리 음악을 듣는 경우 느껴지는 것 또는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 경험과 관련되나요? 이는 판소리의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나요?
2. 다른 장르의 음악을 감상했을 때와 판소리를 들으면서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왜 그러한가요?
3. 감상한 음악을 통해서 특별히 다가온 것이 있나요? 연상된 생각, 느낀 감정, 경험, 현재 마음 상태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함)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판소리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해주세요.
4. 평소 본인이 자주 듣는 음악과 판소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다른가요?
5. 판소리를 듣고 판소리 음악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연구 절차

1) 연구 시행 및 자료 수집

비국악인 참여자에게 선곡된 판소리 음악을 7분여 동안 들려주고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시에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감상자가 음악에 따른 모든 경험반응에 대해 탐색하고, 각각의 경험이 음악의 어떤 면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심층 면접을 하였다. 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녹음, 필사하여 분석시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답변한 것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2차 심층 면접을 하여 분석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2) 자료 분석 방법

연구자는 수정된 근거이론 방법(O'callaghan, 1996)에 따라서 자료를 코딩하여 범주화하고 자료의 속성과 차원을 분석하였다. 코딩은 첫 번째 면접에서 나온 자료를 중요한 현상을 중심으로 지속

적인 비교를 통하여 유사한 것들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1, 2차 심층 면접에서 나온 자료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거나 새롭게 범주화하였다. 이 범주들은 단어 자체 이상의 의미를 파악하여 명명하였다. 각 범주들은 유사한 범주들로 묶여져서 상위, 하위 범주의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3.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분석과정에서 녹음된 내용을 여러 번 듣고 필사하여 범주화 분석과 핵심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답변에 내재된 의미 전달이 모호할 경우 2차 면접을 시행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다. 인터뷰 질문의 구성과 범주화 분석 및 핵심내용을 파악할 때 음악치료학과 박사과정생 5명의 의견을 참고 및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III. 결과 분석

1. 자료 코딩

코딩은 자료를 해체시켜 유사하는 것들로 범주화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5개의 상위 범주와 27개의 하위 범주가 형성되었다.

〈표 3〉 판소리 감상과정에서의 경험적 요소

개념	하위범주	범주
창자의 꺾어 내려지는 기복이 심한 목소리 목소리를 끊으면서 올라감 목소리에 힘이 있는 큰 목소리 목소리의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음 목소리의 진동이 느껴짐 창하는 사람의 끌어 오르는 목소리 속에서 내뿜는 소리	깊이 있는 내면에서 나오는 인성(人聲)	내재된 감성을 자극하는 소리
북소리의 울림을 느낌 북 외에 다른 악기가 없음에도 표현성을 느낌 북소리가 리듬을 타고 감	북소리가 몸과 마음으로 전해짐	
창자와 고수가 서로 맞춰줌 고수가 창자를 도와줌	창자에 대한 고수의 지지, 반영	어우러짐을 인식

〈표 3〉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창자의 경험을 많이 축적해야 가능한 음악임 꾸며지지 않은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음악 많은 시간의 고된 노력과 연습을 통해 나오는 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데 있어서 노력이 느껴짐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떨어냄	창자의 고된 훈련이 드러나는 목소리	판소리의 독창성이 느껴짐
특색 있는 소리 목소리만으로 다양한 표현을 함 현대음악에 나오는 기계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음	표현의 주 매체인 인성	
우리네 삶들을 직접적으로 반영 삶에서 나온 노래 옛 민족의 '가난'의 슬픔이 전해짐 민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함	한국인의 삶이 반영됨	한국인의 민족 정서가 묻어나는 음악에 동요됨
우리 민족의 노동, 순응, 여건상 만족하지 못한 삶에 대한 좌절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묻어남 남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정서가 나타남 우리나라 정서와 맞음	한국인의 기질, 민족 정서가 드러나는 음악으로 다가옴	
접해본 경험과 기회가 적음 고전에 머물러 있음	판소리 경험 부족	판소리에 대해 이질적 감정 느낌
동요되는 부분, 감정이입 되는 것이 적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가사 전달이 안 됨	동요되지 않음	
편안한 느낌이 들었음 구수하고 편함	안정감을 느낌	
흥이 남, 밝음 음악과 함께 동요되어 흥이남	기쁨의 정서가 전해짐	
애절함, 슬픔, 울컥함 절규하는 느낌 짙하게 다가옴, 심금을 울림 아무것도 모르는 내 마음이 동요됨	연민의 감정을 느낌	판소리를 통한 다양한 정서 반응 경험
자공심 환을 느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흥이 느껴짐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가 전해짐	
지루함, 재미없음 벽을 쌓게 됨, 듣고 싶지 않음 마음에 와 닿지 않음 비선호 하는 음악임 거리감을 느낌	음악을 받아드림의 어려움	
심장박동에 강한 영향을 줌 마음 안의 울림이 함께 함을 느낌	몸으로 동조화됨을 느낌	신체 반응 함께함

〈표 3〉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스트레스 상황이 생각남 과거에 두렵고 원망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남 가족과 함께한 슬픔 관련된 사건 생각남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남	내안의 부정적 기억이 떠오름	느낀 정서와 연관된 사고 유발
고된 훈련을 거친 창자와 나를 비교 창자에 대한 존경심 형성 자기통찰의 필요성을 인식함	자기 이해를 위한 과정의 시작	내면의 나를 인식
내안의 억눌러진 감정이 느껴짐 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많음을 느낌 내 과거 기억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동요됨	인식하지 못한 내면의 부정적 감정과 만남	
내가 표현하지 못한 진솔함의 직설적인 표현을 함 카타르시스를 느낌 나를 대신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짐 내 안에 무언가 끌어내는 느낌	나를 대신해 표현하는 정서를 알아감	내 안의 감정과 만남
위로 받고 싶음 울고 싶은 욕구 생김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고 싶음 함께 내질러서 내 안의 것을 해소하고 싶음을 느낌 따라 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짐	내 안의 감정 해소의 욕구를 느낌	
한을 되새기면서 깊은 수준의 감성에서 나를 느끼고 이해함 국악이 친밀하게 느껴짐 나는 한국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듦	민족적 정서와 일치됨	경험한 정서, 인식에 대한 반응 유발
미소 짓게 됨 성취감을 느낌, 후련함을 느낌 내 안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느낌 슬픔의 정서를 자제하게 됨 정신이 맑아짐	경험한 정서의 긍정적 반응	
울었을지도 모름 슬픔을 극대화시킴	부적 감정의 극대화 경험	감정 해결의 근원이 됨
한을 대변해줌, 대리만족을 하게 함 좌절감을 판소리로 해결함을 대리 경험함	내 안의 욕구충족을 대리 경험함	
억눌린 감정 분출됨 긴장 상태의 감소, 긴장감이 해소됨 시원해짐	내 안의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느낌	내 안의 감정 정리 과정을 경험
지지받음, 내 마음을 안아주는 느낌을 받음 내 마음이 다져짐	지지받음을 경험함	
힘이 생김, 시원해짐 슬픈 감정을 정리, 절제해줌	부적 정서의 해결을 도움	

〈표 3〉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내 안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음 슬픈 감정을 정리, 절제 해줌 울컥한 감정의 절제를 하게 됨	내 안의 감정 증재	
내 마음이 다져짐 고요해짐, 정갈해짐, 편안해짐 명상에 도움이 됨 머릿속이 정화되는 느낌, 마음이 차분해짐	정화된 감정을 가짐	내안의 변화 유도
좀더 국악을 접하고 아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음 내가 주변 상황, 사람들과 협력해야 함을 인식함 비장한 각오가 되새겨짐 내가 겸손해짐을 주위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음	인식의 변화가 생김	

2.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코딩된 자료의 범주들 간의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것이다. 이는 자료들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제시한다. 각각의 범주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감상자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표 4).

〈표 4〉 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내재된 감성을 자극하는 소리 고수와 창자의 어우러짐을 인식	음악의 차원	음악요소⇔음악중심
관소리의 독창성이 느껴짐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가 묻어난 음악에 동요됨 관소리에 대해 이질적 감정이 느껴짐	음악에 대한 감정 반응	이질적⇔동질적
관소리를 통한 다양한 정서반응 경험 신체반응이 음악과 함께 함 느낀 정서와 연관된 사고 유발	경험 반응의 종류	신체⇔정서
내면의 나를 인식 내 안의 감정과 만남	자기 인식	긍정적⇔부정적
경험한 정서, 인식과 관련하여 반응 유발	반응의 본질	긍정적⇔부정적
감정 해결의 근원이 됨 내 안의 감정 정리 과정을 경험 내 안의 변화 유도	경험한 감정의 처리 과정	해결⇔미해결

본 연구에서는 판소리의 '내재된 감성을 자극하는 소리', '고수와 창자의 어우러짐을 인식'의 요소가 반응 유발의 원인이 된다. 이는 감상자가 듣고 있는 음악의 요소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특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 감정 반응이 달라진다.

'목소리를 내지르는 것, 목소리를 굵으면서 올라갈 때' (참여자 C)

'창자의 내지르는 목소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느낌, 끓어질 듯하면서도 받쳐주는 애절함' (참여자 C)

'목소리 음의 두께감, 음폭이 다양하고 넓고..진동이 한 부분에서만 나오지 않고 다양' (참여자 D)

'얼씨구, 잘한다, 어이의 추임새나 북소리에 맞춰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 C)

음악의 특성에 대한 반응은 '판소리의 독창성이 느껴짐', '한국인의 민족 정서가 묻어난 음악에 동요됨', '판소리에 대해 이질적 감정 느낌'으로 이는 감상자가 어떤 감정 반응을 갖게 하는가와 연관된다.

'소리를 내는 사람과 장단으로만 모든 흐름, 내용을 전한다는 것이 독창적이라고 생각돼요.' (참여자 B)

'기계적이지 않고 경험을 많이 축적해야 가능한 음악이고. 이 음악 자체가 우리네 삶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삶에서 나온 노래와 비슷해요.' (참여자 C)

'좌절감이 느껴지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아요.' (참여자 C)

'옛날 언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기존의 가요, 팝과는 다른 것 같아요.' (참여자 D)

'판소리 창자가 완창 할 때 존경스러움을 느껴요. 나라면 훈련을 해서 판소리 하는 분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요. 그 과정이 존경스러워요.' (참여자 E)

감상자가 음악을 듣는 동안 경험하는 중심적인 반응은 '판소리를 통한 다양한 정서 반응 경험', '신체반응이 음악과 함께 함', '느낀 정서와 연관된 사고 유발'로 범주화된다. 이는 감상자가 경험한 생리적, 신체적, 감정적인 속성을 갖는다.

'긴장된 마음이 북소리가 울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편안함을 받았어요. 북소리가 심장박동에 강한 영향을 주었어요. 흥이 느껴져요.' (참여자 A)

'소리가 거칠고 기복이 심해 지루하고 재미없고 가사전달이 안되고, 고전에 머물러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참여자 B)

'감정, 울컥함, 콧 끝어울린다는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한이 서려있다는 느낌 때

문에 울컥하고 뭔가 올라옴이 느껴졌어요.’ (참여자 C)
‘어렸을 때 사건이 떠오르면서 두려웠고 원망했던 감정이 한과 연관지어 갖게 되었어요.’
(참여자 C)

감상자가 경험한 반응의 현상은 자신의 문제와 개인적 연관성에 따라서 ‘내면의 나를 인식’, ‘내 안의 감정과 만남’으로 유도된다. 감상자는 판소리 감상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진솔함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중략) 나를 대신하여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져’ (참여자 A)
‘음악에 리듬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위로 받고 싶음과 함께 (중략) 완전한 존재로부터 위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중략) 장면 장면에서 한을 대변해주고 그 결과는 좋다는 정서가 깔려있어서’ (참여자 C)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여자 E)

감상자가 내면에 대해 인식한 것과 관련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 또 다른 반응을 유발하게 되며 ‘경험한 정서, 인식에 대한 반응 유발’로 범주화된다. 이런 반응의 본질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따라서 감상동안에 경험한 감정을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이야기 해주는 것을 듣는 것 자체가 카타르시스를 갖게 되고. 뭔가 후련함. 한이라는 것이 연상되는 것과 함께 슬펐던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중략) 추임새가 가끔씩 절제시켜 주었어요.’ (참여자 C)
‘우러지는 것, 친밀하게 느껴져요. 웬지 모를 내 마음속에서도 나오는 정체성 같은’ (참여자 E)

음악 감상 동안 감상자가 경험하는 것은 판소리의 요소별 특성에 영향을 받아 감정의 중재가 이루어진다. 이는 ‘감정 해결의 근원이 됨’, ‘내 안의 감정 정리 과정을 경험’, ‘내 안의 변화 유도’로 범주화된다.

‘슬픔을 냉정하게 받아드리는 메시지로 작용했어요. 울고 난 후 내 안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듯한 느낌. 뭔가 성취한 것 같은 후련함이 있어요. 대리 만족을 내가 직접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하고 평온함과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
‘남의 일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동조되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정신이 맑아진다거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껴요. 겸손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젊

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되요. 고요해지고 다져지는 마음이.’
(참여자 E)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판소리가 비국악 전공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유도하고, 이는 판소리의 어떤 요소와 연관되어지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섯 명의 비국악인을 대상으로 판소리를 감상하는 동안에 심층면접을 한 후 수정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117개의 개념과 31개의 하위 범주, 15개의 범주가 나타났다. 판소리를 감상하는 동안 감상자는 다양한 정서, 신체 반응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정서와 연관된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내적 문제와 연관되어 자신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내면의 나를 인식하게 하고, 내 안의 감정과 만나도록 중재되었다. 그리고 이는 경험한 나의 정서와 인식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을 유발하였다. 이때 감상자는 판소리와의 관계적 요소를 통해 감정 해결의 근원을 찾고 내 안의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심리, 정서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결과를 갖게 하였다. 이에 이러한 감상자의 연속적 경험 과정들이 판소리의 어떤 요소와 연관되어지는가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창자의 창법과 목소리 요소

판소리에서는 창자가 목소리만으로 내용을 표현력 있게 전달한다. 창자의 내지름, 꺾음, 목소리를 굽어 내림, 굽어 올림,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연음 형식 사용과 같은 창법의 요소는 감상자로 하여금 내재된 감성을 자극하여 민족 정서인 한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혹은 과거에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사건의 연상을 유발한다.

창자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뿜어내는 목소리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 있는 감상자 반응을 유도하여 개인의 내적 문제와 관련되어 평소에 인식하지 못한 기저의 감정을 갖게 한다. 그리고 연속선상에서 감상자는 자신에게 해결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또다시 판소리의 인과적 조건들의 요소가 작용하여 감상자의 내면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와 같이 감상자는 판소리를 듣는 동안 창자의 목소리 요소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뿜어내는 대리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지지감, 해결감 등을 얻게 한다. 혹은 고된 훈련과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창자의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음색을 통해 감상자는 창자의 노고에 숙연해지고 존경심, 겸손함을 갖게 되는 등 마음을 정돈하게 하거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되돌아보게 한다.

이는 정현주(2011)의 연구에서 판소리를 치료적으로 사용한 이론적 근거와 일맥상통한다. 정현주(2011)는 문화에 존속하는 음악이 그 나라 민족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판소리를 치료의 주 매개체로 적용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판소리의 다양한 창법과 음계, 장단 등의 음악적 구조를 내담자의 내적 정서와 일치시키고 치료사와 상호 작용하면서 내담자의 비애의 정서인 한을 목소리를 통해 융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런 미적 경험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내적인 면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김천사(2010)의 연구에서도 판소리의 독특한 발성법인 성음을 활용하여 노인 내담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을 소리로 표현해내도록 하여 자기 효능감 증진에 도움을 주었다.

2) 판소리 사설 요소

감상자는 창자를 통해 전달되는 가사 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뜻을 알지 못하며 판소리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적음을 느끼게 된다. 이는 감상자의 감정 이입에 어려움을 갖게 하고, 재미없으며 지루한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반면, 한국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삶에서 나온 노래, 좌절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해지는 등 감상자는 판소리를 한국인의 기질이나 민족 정서가 묻어난 음악으로 받아들인다.

3) 고수의 북소리 요소

고수가 연주하는 북소리는 감상자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동요되는 등의 신체적 동조화를 유도하고 심장 박동에 영향을 받는 등 마음 안의 울림을 전달받으면서 판소리에 더욱 동조될 수 있도록 작용한다. 또한, 한국인이 갖는 흥이 느껴지기도 하고 밝음의 정서를 유발한다. 이는 감상자가 음악을 듣는 동안 경험한 정서에 더욱 동요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지지 감정의 욕구를 느낄 때 북소리를 통해 구수하고 편안한 느낌을 전해 받는 요소가 된다. 북소리는 감상자의 마음을 수용해 주고, 지지 반응을 경험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판소리가 현대 음악과는 달리 자극적이지 않아 재미없고, 딱 차있는 느낌의 음악이 아님을 경험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4) 고수의 역할 요소

고수는 판소리에서 창자의 노래, 사설에 지지, 반영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감상자로 하여금 고수와 창자 목소리의 어우러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인지적 사고 과정을 유발하여 한민족이 서로 도와주고 협동하며 함께하는 민족적인 정서를 갖게 하고 감상자 개인의 일상 삶으로 이어져서 주변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고수의 역할은 창자의 소리에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더해져서 감상자가 동요되는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혹은, 창자의 감정이 고조될 때 고수의 추임새는 감정을 매듭지어 주는 것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감

상자 자신의 슬픔을 절제해주거나 긴장감, 한을 해결해주는 경험 반응으로 이어진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판소리의 치료적 요소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치료 상황에서 내담자의 기저에 있는 ‘울컥함, 슬픔, 애절함’ 등의 연민의 정서 반응을 표면화하도록 할 때 판소리 창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창법을 모방하는 것은 좋은 치료적 중재 매체가 될 수 있겠다. 또한, 이런 감정들은 연속적으로 창자의 목소리를 통해 또 한 번의 동요, 지지, 해결의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때 치료사는 고수의 역할을 하면서 북소리와 추임새를 사용해 내담자를 지지, 반영해줄 수 있다. 내담자는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된 환경에서 기저에 있는 억눌려진 부정적인 감정을 소리로 표출하도록 하여 감정의 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판소리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정서인 ‘한’을 경험하게 해주었고, 이는 자신에게 내재된 민족적인 정서를 공감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를 그룹 치료에 활용하면 그룹원을 하나로 묶어줄 뿐 아니라 판소리를 통해 내재된 감정을 함께 표출시키기 위한 중재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서 판소리의 요소는 감상자를 자극하거나 다양한 감정의 동요 및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관련된 사고와 연상을 유도하였다. 이런 경험 반응은 감상하는 동안 판소리의 요소가 다시 재적용 되어 감상자가 경험한 부정적 정서의 해소, 긍정적 정서의 지지, 동요를 통해 자기와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변화까지 유도되었다. 따라서 이는 음악치료 현장에서 판소리 감상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고 경험하며 이에 대해 중재되는 과정까지 포함될 수 있다.

넷째, 판소리는 가사의 사설을 통해 민족의 삶의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음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치료 현장에서 판소리 감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한 후 이를 다룰 수 있는 내용의 가사를 만들어서 자신의 내면을 전달 및 표현할 수 있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더 많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풍부한 자료를 얻는다면 더욱 객관적이고 일반화될 수 있는 이론제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평소 국악에 대한 친밀감, 익숙함 정도를 고려하여 국악에 대해 깊이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참여자의 선정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 자료 수집 과정의 절차가 참여자마다 판소리를 듣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고 일주일 이내 2차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참여자의 답에 따라 다시 음악을 듣는 과정을 재경험하게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연관된 다른 종류의 판소리를 함께 제시하였다면 좀 더 확대되고 깊이 있는 반응의 경험 및 유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유석 (2010). 판소리 즉흥성에 대한 음악적 검토 - 이동백의 유성기음반 중 〈박석티〉 대목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44, 41-69.
- 김천사 (2010). 판소리 창작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관한 연구: 성음을 중심으로. **음악치료교육연구**, 8(1), 48-60.
- 유영진 (2011). 한국 민요의 미의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명원 (1998). 한국 전통음악에 나타난 한(恨)의 음악적 구조. **한국민속학회**, 30(1), 107-134.
- 이석원 (2000). **음악 심리학**. 서울: 심설당.
- 이성천 (1997). **한국·한국인·한국음악: 한국 전통음악에 내재한 의식**.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이흥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이희경 (2009). 한국 전통 성악음악의 현대적 창작 가능성에 관한 소고-수행성과 구설성의 관점에서. **음악학**, 17, 121-148.
- 서한범 (2002).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 신현정, 박세열, 배양현 (1996). 한국전통 음악의 리듬(정악과 민속악)과 타악기의 심리적 표상. **한국인지 및 생물심리학회지**, 8(2), 367-385.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현주 (2011). **인간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 한명희 (1995). **우리가락 우리문화**. 서울: 조선일보사.
- Chong, H. J. (2011). Sori of a woman with trauma for inner safety and empowerment. In F. Baker & S. Uhlig (Eds.), *Therapeutic voice work method in music therapy*. Jessica Kingsley Publisher. In Press.
- Gfeller, K. (1990). Music as communication. In R Unkefer(Ed.), *Music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dults with mental disorder*. (pp. 50-62). New York: Shimer Books.
- Gregory, H. P. (2005). Music & mixed emotion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 O'Callaghan, C. (1996). Lyrical themes in songs written by palliative care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33(2), 74-92.

- 게재신청일: 2012. 10. 30.
- 수정투고일: 2012. 11. 10.
- 게재확정일: 2012. 11. 17.